

야구장 모래를 가져가는 선수들

일본의 야구는 프로뿐만 아니라 고교 야구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뜨겁기로 유명한데 고교야구는 프로야구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미래 야구 스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감동의 무대임

□ 일본 야구의 변천사

- 일본 프로야구의 역사는 우리보다 무려 45년이나 앞서 있는데, 긴 역사만큼이나 운영과 실적이 우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음
- 1931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 야구 선발팀은 도쿄의 6대 대학선발팀과 경기를 벌였고, 이 경기로 계기로 일본에서도 프로야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듬해 1932년 학생들이 즐기는 스포츠였던 아마추어 팀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일본동경클럽(大日本東京俱樂部, 현재의 요미우리 자이언트 팀)이라는 프로팀이 처음으로 탄생하였음
- 그 후 미국의 프로리그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1936년 마침내 전일본직업야구연맹이 발족하였고, 7개 구단을 시작으로 일본에 프로리그가 출범하였음
-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의 양대 리그로 나뉘어져 각 리그에 6개 팀이 경쟁하는 현재 일본의 프로야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49년부터임
- * 실제 1949년부터가 명실 공히 일본프로야구가 대중스포츠의 꽃으로 부각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5,6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이끌며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던 국민들이 한때나마 마음을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프로야구 관전이었음.

□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성장과정

- 일본 프로야구는 연고지의 팬들이 보내는 성원과 응원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쿄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트 팀은 그 성장과정과 국민적 대우가 특별함
- 일본에서 통칭 교진군(巨人軍)으로 불리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수 없이 많은 스타선수를 배출하면서 5,60년대에는 일본시리즈 우승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음
- 특히 1953년 구단주였던 요미우리 신문사가 일본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인 ‘일본TV’를 개국하면서 연고지를 벗어나 생생한 선수들의 활약상을 일본전역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음
- * TV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열도를 움직이는 교진군의 활약상은 대중의 시선을 TV 앞으로 끌어 모으기에 충분했음

□ 일본의 고교 야구

- 일본의 야구는 프로뿐 아니라 고교야구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뜨겁기로도 유명함
- 봄과 여름에 두 차례 열리는 전국고교야구대회는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90여개의 고교 팀이 참가하는 치열한 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해야 본선 시합에 나갈 수 있음
- TV 중계를 통해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해당고교의 절도 있는 응원과 함께 그대로 전국에 전해지며, 정교하게 가다듬은 프로 선수들과는 달리 조금은 어설피지만 승패를 뛰어넘어 최선을

다하는 젊은 패기에 일본 국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냄

- 고교 야구는 프로야구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미래 야구 스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감동의 무대로 매년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 있는 고시엔(甲子園)이라는 야구장에서 펼쳐짐
- * 늘어나는 관중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한 고시엔 야구장이 완공된 것이 다이쇼우(大正) 13년(1924년)이었으며, 그 해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각각 처음에 해당하는 갑(甲)과 자(子)가 60년 만에 만나는 운수 좋은 해였음
- * 그래서 야구장 일대를 고시엔이라고 하고 야구장도 고시엔 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함

□ 고시엔의 모래

- 고시엔에서 펼쳐지는 고교야구를 보고 있으면 경기가 끝나고 또 하나 진풍경이 연출됨
- 경기에 승리하지 못하고 마지막 고우엔 무대가 되는 진 팀은 양 팀 간의 인사가 끝나고 벤치로 돌아가는 길에 그라운드의 모래를 한줌 손으로 모아 주머니에 넣음
- * 1949년 준결승전에서 3회 연속 우승을 목표로 하고 출전한 후쿠오카(福岡)현의 고쿠라키타(小倉北) 고교가 패하자, 팀의 에이스였던 후쿠시마 카즈오 선수가 홈베이스의 모래를 뒷주머니에 담았음
- * 이것이 ‘고시엔 모래’의 유래로, 치열한 지역예선에서 우승하여 고시엔의 흙을 밟아본 것은 졸업 후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훈장으로 남아 성인이 되어, 가령 야구선수가 아닌 인생을 살더라도 어디에서나 훌륭한 자랑거리가 됨